

현역 8명 손잡은 양부남이나, '친명 원외' 강위원이나

뉴스 초점 -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원내·원외 대결'

8월4일 전당원대회서 선출...지방선거 입지자들 줄서기 벌써 '과열' 양, 광주 국회의원 8명 합의 후 추대...“조직 관리 현역의원들이 맡아야” 강,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표...권리당원 표 비중 90%로 높여 호재

오는 8월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이 양부남(서구) 국회의원을 공개 지지했고, 대표적인 친이재명계(친명) 인사인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뒤 친명계 조직이 대거 광주에서 행사를 여는 등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특히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 측도 광주·전남 대선 표밭을 일구게 될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 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줄서기'가 시작되는 등 과열 양상도 우려되고 있다.

1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오는 8월4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전당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도 치러진다. 오는 18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알려졌지만 선거 방식이나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을 시당 위원장 후보로 합의·추대 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지지했다.

원외에서는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강성 친명 원외의 모임으로 탄탄한 강성 당원들의 조직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중앙당이 전국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 표 비중을 90%로 높이는 점은 강 상임대표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석도 있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했는데, 광주 지역권력이 많은 지역으로 분류돼 대의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 비율을 1대9로 반영하게 됐기 때문이다.

당초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각각 50%씩 반영돼 왔다는 점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면 원외 인사인 강 상임대표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양부남 의원도 8명의 광주지역 국회의원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제22대 국회에 진출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조직력도 막강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최근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대의원 개편 등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지역구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 당 안팎에서는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 내 당 조직을 관리하는 시당 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중앙당 지침에 따라 당원 중심으로 가기 위해 원외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도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강 상임대표 측은 대규모 선거캠프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서고 있고, 최근에는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광주를 찾아 토코쇼를 진행하며 강 상임대표 측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역정가 내에서는 원외라는 약점 속에서도 강 상임대표와 양 의원이 막강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부남 의원은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변방으로 밀려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화두인 ‘당원 중심’ 시당 운영을 위해 공경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캠프 H. M. 스미스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尹,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한미동맹 강조

회 등을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인재 육성을 위한 가정 '정치 학교', 주민들과 시의 발전을 주도할 가정 '정책 연구원' 등을 구성해 지방 분권화 시대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강위원 상임대표는 “기존 ‘친명 대 비명’, ‘원내 대 원외’가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관행 대 혁신’이 관건”이라며 “정당 혁신과 정치 개혁에 관심 있는 전국의 많은 당원이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시당 위원장이 된다면 구체적인 안건으로 당원·시민과 교감하고, 정치 혁명에 준하는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직접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할 핵심 파트너로서 인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2018년 태평양사령부에서 개명됐다.

한국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찾은 것은 전신인 태평양사령부 때를 통틀어 29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1981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2018년 인태사령부로 개편된 이후 이곳을 방문한 우리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 중 규모와 군사적 중요성이 가장 크다. 최대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권역인 데다 대만, 일본, 한반도 등 주요 전략 지역들이 포함돼 있어서다.

규모로만 봐도 미국 서부 해안에서부터 인도 서부 국경까지, 남극에서부터 북극까지 지구 표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을 관할한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지휘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태사령부에 도착해 환영 행사를 하고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과 한반도와 역대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

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이 앞서 3년간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재직하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리 정부가 수여하는 보국훈장 통일장을 추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작전센터로 이동해 인태사령부 작전 현황을 청취했다.

파파로 사령관이 주먹을 쥐며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라고 외치자 윤 대통령도 주먹을 쥐며 “위 고 투게더”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 장병 200여명과도 만나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엄중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인태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제공·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공고한 공약과 협력에 토대를 둔 강력한 능력이야말로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굳건히 수호하는 원동력이고, 그 근간에 바로 인태사령부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터뷰

“호남 목소리 중앙에 전달·광주답게 싸우겠다”

민형배 의원 민주 최고위원 출마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민형배(광주 광산·사진) 국회의원은 10일 “윤석열 정권은 술 취한 상태에 대한민국을 운전 중이며, 이 체제로는 민생도 민주주의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무너트리기 위해 출마했고, 여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

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강했다”면서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며 이 심장이 ‘떨떡떨떡’ 뛰어야 당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또 “현재 ‘수도권 중심 정당화’ 되고 있는 민주당에 머물러 지역에서 활력을 찾지 않으면, 다음 집권에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지도부로 가서 지역 목소리를 잘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 이유에 대해 “충선 민심인 광주시민의 명령을 잘 받들겠다”라며 “이 정부가 여전히 지금 바뀌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잘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광주 시민들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



면서 “정권을 꼭 다시 탈환해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본다. 그래서 광주답게 싸워서 이기고 또 그 선봉에서 선두에 맞서보겠다는 마음이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호남정치 복원이 중요하단데 최근 호남 정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면서 “호남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중앙 정치에서 혹은 민주당에서 관찰시켜 나가는 것이며, 광주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광주의 요구가 중앙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보겠다는 마음이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광주와 중앙 정치를 긴밀하게 연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